

20대 이하 '빛의 굴레' 갈수록 심화

은행 주담대 연체율 역대 최고 0.44%...5년만에 7.5배 늘어 30대 이하 가계대출도 급증

이제 막 성인이 된 20대 청년들이 빚에 허덕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대부분 집을 구하기 위해 금융권에서 돈을 빌렸는데, 별다른 소득원이 없어 제때 빚을 갚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또 30대 이하 청년들의 가계대출도 늘고있어 지금과 같은 상황이 심화되면, 결국 결혼과 출산 감소로 이어져 심각한 사회문제를 초래할 것이라는 비관적인 전망도 나온다.

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시중 19개 은행의 '연령별 주택담보대출 연체율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 2분기 말 기준 20대 이하의 연체율은 0.44%였다.

이 수치는 금감원이 제공한 최근 6년 동안의 연체율 중 가장 높았는데, 은행권에서는 6년내 최고가 아닌 역대 최고일 것으로 보고있다.

최근 부동산 가격 급등과 고금리, 경기침체 등으로 대출과 연체율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당장 올 6월 말 기준 20대 이하의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34조2500억원으로 2018년 3분기 보다 2.54배 늘었다. 같은 기간 연체율은 200억에서 1500억원으로 7.5배 증가했다.

주목해야 할 점은 '19세 이하'의 연체율이다. 줄곧 0%였던 이 연령대 연체율이 2022년 2분기 12.5%를 기록하더니 올 2분기 기준 19세 이하 연체율은 20%로 치솟았기 때문이다.

은행권에서는 주택금융공사 보증부가 청년 전용 대출상품을 출시한 탓인 것으로 보고있다.

이 상품은 만 19세 이상 30세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무소득자도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카카오펙에서 이 상품의 60%를 취급했는데 연체 발생 가능성이 큰 탓에 시중은행들은 판매에 소극적이었기 때문이다. 뺨한 결과지만 카카오펙의 19세 이하 주담대 연체율은 27%에 달하고 있다.

20·30대 청년들의 부실 대출 문제도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지난 6월 한국은행이 발표한 '금융안정 보고서'에서는 "취약차주(저소득자이거나 신용등급이 낮은 다중채무자)의 연체율이 2020년 이후 가파르

게 상승하고 있고, 2020년 이후 취급된 가계대출 가운데 30대 이하 대출자의 비중이 높은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2013-2019년 취급된 가계대출 중 30대 이하 대출자 비중은 29.6%였는데, 2020-2021년 38.3%로 증가했다. 한은은 "30대 이하 대출자는 소득 기반이 타 연령층에 비해 취약해 연체율이 예상보다 높게 상승할 가능성을 염두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청년층의 빚 부담은 금융시스템 내 잠재적인 불안 요소일 뿐더러, 저출산과 비혼을 부추길 가능성이 있다.

양경숙 의원은 "고금리 기조가 지속되는 가운데, 소득기반 등이 취약한 30대 이하의 연체율이 추가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며 "청년층의 과도한 빚은 소비위축과 함께 금융은 물론 경제 전반의 위험 요소가 될 수 있는 만큼 청년 대출을 관리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젊은 층의 빚이 늘어날수록 이자 부담 등으로 결혼과 출산 연령이 늦춰지고 아예 혼인이나 출산을 포기하는 사례가 늘어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롯데백화점, 맞춤정장 서비스 롯데백화점 광주점 7층 '폴로 말프로렌 맨즈'는 오는 9월 14일까지 맞춤 정장 사전예약을 신청받는다. 맞춤정장 서비스는 선착순 8명 한정으로 진행, 사전신청 인원 대상으로 장인의 테일러링은 9월 24일에 선보일 예정이다. <롯데백화점 광주점 제공>

광주은행, 최고 연 5% 'TenTen양궁적금'

9월 15일까지 한시 판매

광주은행(은행장 고병일)은 7일 최고 연 5% 금리의 'TenTen양궁적금'을 오는 9월 15일까지 한시 판매한다고 밝혔다.

광주은행 '텐텐(Ten Ten)' 양궁단과 광주 여대 양궁단 소속 선수의 선전을 지원하며 출시된 이번 상품은 개인 고객이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1인 1계좌이며 월 20만원 한도 1년제로 광주은행 전 영업점과 스마트뱅킹(APP), 모바일웹뱅킹에서 가입 가능하다.

기본금리는 정액적립식 연 3.4%(자유적립식 연 3.1%), 비대면채널(스마트뱅킹, 모바일웹뱅킹)로 가입 시 연 0.2%포인트 우대금리를 제공하며, 대회 최종 결과에 따라 최고 연 1.4%포인트의 추가 우대금리를 더해 최고 연 5.0%(정액

적립식 기준)의 금리를 받을 수 있다.

추가 우대금리는 오는 10월 중국에서 개최되는 국제 스포츠대회 종목 중 양궁(리커브) 경기에 광주은행 텐텐 양궁단 또는 광주여대 양궁단 소속 선수가 출전한 본선 최종 결과에 따라 정해진다.

우승 1회당 연 0.3%포인트, 준우승 1회당 연 0.2%포인트, 3위 1회당 연 0.1%p포인트로, 최대 연 1.4%포인트의 추가 우대금리를 제공한다.

박문수 광주은행 상품개발실장은 "광주은행 텐텐(Ten Ten) 양궁단과 '광주여대대학교 양궁단'의 선전을 지원하기 위해 신상품을 출시하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체육·문화·예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역과의 상생발전을 적극 추진해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농협 광주본부, '건강한 여름나기 삼계탕 나눔 행사'

가톨릭 광주사회복지회 방문

농협 광주본부(본부장 고성신)는 7일 가톨릭 광주사회복지회를 방문해 '건강한 여름나기 삼계탕 나눔 행사'를 실시했다.

(사진) 이날 행사는 사회공헌 실천과 우리 농·축산물 소비촉진을 통한 농촌경제 활성화를 위해 마련됐다.

고성신 농협중앙회 광주본부장, 박내준 NH농협은행 광주본부장, 우리농업지킴이운동본부 광주지역본부 한재규 위원장, 가톨릭광주사회복지회 이봉문 신부 등이 참석했다.

이날 전달된 삼계탕 230세트는 농협 임직원들의 후원금으로 조성된 기금으로 마련됐다.

고성신 본부장은 "계속되는 폭염으로 열악한 환경이 지속 발생되는 가운데 어려운 이웃들의 건강한 여름을 위해 행사를 마련하게 됐다"며 "농협광주본부는 앞으로도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통해 이웃사랑실천과 사회적 책임을 다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중기부, 사내벤처 발굴·육성...사업화자금·멘토링 지원

중소벤처기업부는 다음 달 8일까지 '사내벤처 육성 프로그램'에 참여할 사내벤처팀을 모집한다고 7일 밝혔다. 사내벤처 육성 프로그램은 대·중견·중소·공기업의 우수 기술 인력이 창업에 도전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사내벤처 운영기업이 내부에서 발굴·육성한 사

내벤처팀을 중기부에 추천하면 선정평가를 통해 최종 선발된다. 이번에는 30개 안팎의 사내벤처팀을 선정할 예정이다. 선정된 사내벤처팀은 중기부의 사업화 자금(최대 1억원)과 주관기관의 교육, 멘토링, 네트워킹 등으로 구성된 성장 지원 프로그램을 지원받는다.

/박기용 기자 pboxer@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코스피	2580.71 (-22.09)
↓ 코스닥	898.22 (-20.21)
↓ 금리(국고채 3년)	3.689 (-0.049)
↓ 환율(USD)	1306.20 (-3.60)

최대 전력수요 93.6GW...역대 여름 최고치 경신

폭염이 지속 중인 가운데 7일 전력 수요가 역대 여름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까지 올랐다.

전력거래소는 이날 오후 5시 최대 전력 수요가 93.615GW(기가와트)를 나타내 역대 여름철 최고이던 작년 7월 7일 오후 5시의 92.990GW를 경신했다고 밝혔다.

이는 산업통상자원부와 전력거래소가 당초 전망했던 최대 전력 수요인 92.9GW보다 다소 높은 수준이다.

전력 수요가 최고조에 달한 시간대의 공급 능력은 104.3GW로 예비율은 10.7GW(예비율 11.4%)의 안정적 수준을 나타냈다.

최근 사고로 정지됐던 한빛 원전 2호기(0.95GW)와 신보령 2호기(1.02GW)가 적기

에 전력 계통에 연결되면서 공급 능력이 2GW가량 늘어나 최대 전력 수요 시간대에도 10% 이상의 비교적 여유 있는 예비력이 유지됐다고 전력거래소는 설명했다.

전력거래소는 북상 중인 제6호 태풍 '카눈'의 영향으로 9일까지 높은 전력 수요가 이어지다가 10일 태풍이 상륙하면서 전력 수요가 점차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거래소는 "태풍 '카눈'의 이동 경로가 내륙을 관통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예상하지 못한 전력 수요 급증 또는 태풍에 의한 발전 설비 고장 등으로 예비력이 낮아질 경우에 대비해 단계별로 준비된 예비력 자원을 활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건물·주택 리모델링, 신축, 지붕공사

건축시공, 설계, 견적, 리모델링, 상담문의

